

月間建築情報

1979. 7. 20~8. 21

서울시 `公園·廣場등에 地下駐車場 개발

올 下半年부터 요소마다 駐車建物도

서울시는 公園·都心綠地·學校運動場·廣場 등의 地下에 駐車場을 개발하고, 都心地에서는 建築主 부담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의 駐車建物과 駐車場을 개발, 늦어도 81년까지는 都心圈의 駐車難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8월부터 旧半島아케이트 철거대지 16 22평에 350대의 駐車施設과 뉴코리아 부속건물 및 한흥빌딩 철거대지 317평에는 地下 3층 지상 15층의 駐車專用 建物を 건축하여 330대를 주차케 하며, 産銀 移轉計酬에 맞추어 그 철거대지에 지하5층 연면적 3959평 규모의 駐車建物を 세울 방침이다.

시당국자는 20일, 이같은 1단계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乙支路入口·武橋洞·小公洞·鍾路 등 都心圈의 駐車難이 해소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都心全域으로 확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老弱者·肢体不自由者 위해 橫斷歩道 턱 없애기로

自轉車 專用路도 擴大하기로 - 서울시

21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걸쳐 車道보다 10~20cm 높게 구획된 歩道가운데 橫斷道路部分 및 폭 4~8m의 좁은 道路와 연결되는 부분의 歩道를 경사지게 改造해 肢体不自由者 및 老弱者들의 歩行을 편리하게 하기로 하고, 우선 今年 下半年 안에 主要幹線道路에 대해 着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한 현재 번두리 일부지역에만 설치되어있는 自轉車專用道路를 副都心地域에도 설치하여, 油類節約과 市民健康을 도모하기로 하고, 自轉車專用道路 설치가능지역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中東建設受注, 次元 높아야

自國業體保護 많고, 技術限界點에

7월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 등 中東國들이 自國民保護政策을 내세워 일정비율의 現地人 고용을 계약조건으로 하고있으며, 一括都給方式에서 自國業體가 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工事單價가 낮고 어려운 工事만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또 工事量도 크게 줄어, 바레인의 경우 금년 上半期 모두 9,8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海外建設現場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建設技能工의 평균 임금은 月 700달러선으로, 現地人의 2배, 인도·파키스탄 보다는 3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어서 임금면에서 불리하게 되었다.

또 종전에 비해 工事內容은, 고도의 技術과 대규모 資本을 요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技術集約型 工事로 바뀌고 있어 기술면에서 한계점에 이르러 선진국의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자재면에서 현지의 풍토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것도, 設計 및 監理를 맡고있는 英·美系 会社들이 自國產 資材를 쓰도록 시방서에 못박고 있어 국산자재 사용이 어려우며, 우리

업체들 끼리의 과당경쟁도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지금까지의 民間業界에서 주도되어온 것을, 이제는 外交的 次元에서의 受注支援이 필요하며, 또 건설 시장을 해외자원개발과 연결지워 東南亞·中南美 등에 확대하고, 海外建設業체에 대해서도 綜合商社와 같은 각종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漢陽아파트團地, LP 가스 폭발

住民등 30여명 부상

7월26일 새벽, 서울 江南區의 漢陽아파트 7棟 앞 地下高圧 개스貯藏室에서 LP 개스가 폭발 잠자던 주민·경비원 등 30여명이 부상하고, 폭음과 진동으로 주변 11個棟의 유리창 1천여장과 주차중인 승용차 20여대의 차창이 모두 깨졌다. 이 폭발 원인은 저장탱크 액면제 밸브에서 새어나온 개스가 2번 기화기에서 생긴 전기 스파크에 인화, 폭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團地內에서 LP 개스의 큰 폭발사고는 작년 9월의 住公 新盤浦아파트, 10월의 現代아파트에서 있었다.

금년의 勞賃·資材價·油價引上으로

政府工事予算 23% 추가부담해야

7월26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금년 당초 예산중 建設工事費가 5,28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올들어 勞賃과 資材代 인상으로 815억원, 7.10의 油價 및 관련製品價 인상에 따라 423억원 계 1,237억원(23.4%)이 더 소요되게 되었다.

이중 建築工事費部門을 보면 勞賃·資材代 인상으로 238억원, 油價등 인상으로 126억원, 계 1,747억원(26.3%)이 소요되게 되었다.

建設工事費 追加所要額 내용 (백만원)

구분	'79예산	추가소요액	증가율(%)	총 소요액
土木	37,565	8,641	23.0	46,206
港湾	63,444	14,854	23.4	78,298
橋梁	114	29	25.4	143
建物	138,319	36,435	26.3	174,754
河川	44,049	7,630	17.3	51,679
기타	245,182	56,192	22.9	301,374
計	528,673	123,781	23.4	652,454

이러한 建築工事費의 대폭 수요는, 특히 금년말까지 大都市 過密學級 解消를 위한 國民學校 教室新築 및 改築에 크게 영향을 주어 과밀학급 현상은 당분간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LP가스 安全管理 対策

漢陽아파트 사고 계기— 관계당국

7월27일 건설부에 의하면, 아파트에서 잇단 개스폭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① 개스貯藏室內 防爆燈 설치를 의무화

하고 ② 家口當 개스警報器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③ 아파트 建設施工計劃 및 設計圖書를 심사할 때 개스貯藏室의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기로 하는등 종합적인 安全管理策을 마련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LP가스 安全管理策으로서 ① 안전관리자 근무철저, ② 年2회이상 保安檢査 실시, ③ 安全點檢 실시 및 기록 철저, ④ 환풍시설 수시 점검, ⑤ 각종 계기 점검 및 작동여부 확인 등을 지시했다.

8月부터 建築規制 대폭 완화

大型住宅·公共建築·江北지역은 제외
建築資材 需給安定등에 따라— 건설부

건설부는 78년 5월20일부터 실시해온 建築許可制限指置중, ① 빌딩을 포함한 사무소 ② 市場 및 店舖등 特殊建築物, ③ 私設講習所, ④ 위험물 저장시설, ⑤ 言論施設(촬영소 포함), ⑥ 宿泊施設, ⑦ 太陽熱 住宅(40평 이상) 등의 건축허가를 8월 1일부터 再開토록 市·道에 시달했다.

28일, 건설부에 의하면 그간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事務室 賃貸料가 상승, 물가에 영향해왔고 또한 流通施設 近代化에 지장을 주었기때문에 이번에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일부 건축은 계속 제한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시멘트, 철근 등의 資材需給事情이 완전히 균형올 이르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며, 건설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資材 및 人力需給상태가 호전되면 규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방침이라 했다.

그런데 이번 취해진 부분적 해제조치로 소요될 시멘트는 전국적으로 235,000톤, 철근은 42,000톤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 약 75만평의 건축물이 건축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제한될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公共建築物…국가·지방자치단체의 庁舎, 정부부자기관, 은행, 비영리 法人 및 公益法人의 사무실

商業用 建築物…서울江北地域內의 事務室用 建築物 江北地域의 販買施設 및 私設講習所, 慰勞施設(유홍장, 사치성 옥탕 등), 觀覽集會施設, 展示施設.

住居用 建築物…40평 이상의 單獨住宅, 45평 이상 共同住宅 (단 太陽熱住宅은 제외)

大規模 建築物…31층 이상이거나 20,000평 이상인 一般 建築物, 10,000평 이상의 特殊建築物, 1,000평 이상의 宗教施設

設計·工事監理 業務, 分難 二元化

監理業務 절저를 위해— 高長官談

高在一 건설부장관은 27일, 현행 建築士法에서는 하나의 建築士事務所가 設計 및 工事監理業務를 함께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監理業務가 소홀한 감이 없지않다고 지적,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을 一部 改正하여 建築士業務를 設計·監理業務로 二元化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建築上業務가 二元化되면 현행법상 建築士는 設計 또는 監理業務를 担一, 한가지 業務만을 전담해야 하며, 監理業務를 선택한 建築士는 건축물의 監理業務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電氣·機械·衛生·暖房·가스 등 전문기술자로 구성되는 監理團을 구성, 監理業務만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도 政府工事單價 36.8% 引上

資材價上昇감안, 總 5,472億원 計上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의 순수재정부문으로 집행할 工事單價를 금년보다 28% 정도 늘어난 5,124億 원(부대경비 및 기타 요인 제외)으로 책정했었으나, 油價 및 電氣料金 대폭 상승으로 인한 油類·電氣·建築資材 및 賃金上昇要因을 감안 36.8% 인상한 5,472億 원으로 잡는 반면 政府工事의 物量을 당초계획보다 대폭 축소 조정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政府가 집행할 教育·農業·道路·上下水道·港湾·流通施設 건설등 社會 및 經濟開發事業이 금년의 신장률보다 대폭 줄어드는 등 開發投資에 주춤살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 관계자는 油價引上으로 금년도 主要 完工事業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의 社會 및 經濟開發投資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共同住宅管理人 면허기준, 하자補修 등

건설부, 共同住宅管理會(안)을 마련

7월 30일 건설부에서 마련한 共同住宅管理會(안)에 따르면, 共同住宅과 부대福利施設을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期間, 하자補修義務期間, 특별修繕充當金을 적립하여야 할 住宅의 범위, 住宅管理人의 免許基準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事業主体가 담당하여야 할 共同住宅과 부대·복리시설의 管理期間은 竣工檢査를 필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다만 부대·복리시설 중, 기부 채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 관리청이 관리토록 하였다. 또 共同住宅 및 복리·부대시설의 하자補修期間은 1년 이상으로 하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적립토록 했으며, 이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補修要求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入住者가 住宅建設促進法 제38조에 의거 特別修繕充當金을 적립해야 할 共同住宅의 범위를 中央暖房供給施設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同案은 住宅管理人 免許基準도 명시해놓고 있는데, 免許種類를 甲·乙 2종으로 하고, 甲種은 資本金 1억 원 이상으로, 電氣·機械·消防施設 管理技術者 2급 각각 1인 이상과 原動機·高圧개스危險物 技術者 1급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團地內 汚物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都心半徑 5km 외곽의 流通施設

江北에도 建築規制 풀어—서울시

8월 2일 서울시는 江北地域이라 하더라도 都心半徑 5km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流通施設의 근대화를 위한 市

場·百貨店·수퍼마켓·店舖등의 판매시설분의 新增築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하고,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부대시설로 세워지는 流通關係施設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가 내려진 작년 5월 20일 이전에 事業承認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발표된 건축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生必需品 流通去來를 원활히 하고, 공동주택 주변의 생활조건을 갖추어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道峰區 전역과, 東大門區·城北區·城東區 일부지역 등 도심변경 5km 밖에서는 판매시설의 신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市郡 1體育館 및 運動場 확보를

—文敎部 長期體育振興計劃

문교당국은 長期體育振興計劃을 작성 8월 3일 崔圭夏 國務總理 주재로 열리는 國民體育審議委員會에 회부했다. 同計劃에 따르면, 직장별로 1종목 이상의 體育施設을 확충하고 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國立公園, 觀光地, 아파트團地등에도 체육시설을 의무화시키며, 1市郡 1體育館 및 運動場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首都圈 廣域開發計劃마련 — 정부

5大戰略圈으로 나뉘, 82~91년에 단계적시행

서울人口 91년까지 900萬으로 억제

8월 3일 정부는 首都圈의 人口를 분산시키고 産業 施設을 再配置하기 위해 서울시와 京畿道·江原道 鐵原郡 일대를 포함하는 12,496km²를 首都圈 5大開發 戰略圈으로 묶어 廣域開發計劃을 수립·집행하기로 했다.

91년에 1,000萬線을 넘어설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人口를 900萬線으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설정된, 이 首都圈 廣域開發計劃은 82~86년을 1단계, 87~91년을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의 首都圈 廣域開發計劃은 行政首都建設과 이전에 따라 서울은 産業經濟活動의 中心地로, 行政首都는 行政外交 中心地로 機能을 분리시키며, 서울의 그린벨트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는데, 18명의 外國學者와 42명의 國內關係者가 참석, 8일 서울 世宗文化會館에서 열리는 首都圈計劃의 基本戰略과 政策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서 基本議題로 다루어진다.

5大開發戰略圈은 ① 서울市市 半徑 15km의 都心圈과 이 都心圈에서 반경 20km이내인 서울 大都心圈(市市半徑 35km)中, 漢水以北을 묶어 人口集中을 막기 위한 開發制限地域으로, ② 서울大都心圈의 漢水以南을 開發抑制地域으로, ③ 서울大都心圈에서 반경 40km이내인 周邊開發圈(市市半徑 70km)中 漢水以南을 人口分散誘導를 위한 開發促進地域, ④ 周邊 開發圈의 東쪽 北漢江과 南漢江 일대를 漢江保存을 위한 環境保全地域,

⑤ 周邊開發圈中 漢水以北을 開發留保를 위한 特殊開發地域으로 나눈다.

이 開發圈을 중심으로 6大開發試案을 마련했으며, 이 試案中, ① 水原·平沢·半月·安仲·利川 등 成長中心 都市開發과 ② 신장·경안·곤지암·長湖院을 중심으로 한 副軸 開發, ③ 南陽·朝岩·發安 등 沿岸都市開發을 함께 하는것이 人口分散 效果가 가장 높은것(分散度 44%)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開發戰略을 뒷받침하기 위해 産業施設의 再配置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基本構想으로 ① 서울市 一円과 江北地域을 工場疏散地域으로 정해 公害業所를 首都圈 새 工業地域으로 이전하는 한편, 都市型 工場을 再配置하거나 団地化하도록 했으며, ② 水原·城南·安養市를 衛星都市型 工業地域으로 정해, 電子·纖維·食品製造業所 등 消費産業과 大都市指向 業種을 끌어 들이도록 했다. 또 ③ 烏山·松炭·平沢 등 京釜線 周邊地域은 重工業系列과 部品生産業種, 背後農業 地域을 위한 輕工業을 誘致하고 ④ 半月·安仲·朝岩·發安·南陽 등 지를 西海岸 重工業地域으로 정해, 서울市에서 옮겨온 工場과 新規 重工業工場이 들어서도록 했으며, ⑤ 곤지암·신장·경안·利川·長湖院 등 産業道路 周邊地域에는 陶磁器·레이저産業·研究開發産業·情報産業 團地를 만들고 安城과 周邊 小都市은 農畜産物 加工業을 육성토록 했다.

이 계획은 76년부터 建設部와 서울市 등이 추진해온 首都圈 人口分散策을 마무리 짓기 위한것으로 5大開發戰略圈의 綜合 開發計劃을 서둘러 마련하고 首都圈 整備基本法을 개정하며, 首都圈 廣域行政 體制를 확립할것과 環境保全의 政策目標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政策當局에 건의했다.

公共建物·大型住宅 등의 建築 明年初에 規制解除(?)

8月6日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부터 建築規制措置는 최근의 資材事情의 호전과, 앞으로의 수급상태를 보아 年末에 公共建物の 新築制限을 풀고, 뒤따라 40평 이상의 單獨住宅과 45평 이상의 아파트 및 聯立住宅에 대한 제한도 풀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건축 및 油價引上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建設技能工과 기타 근로자의 失業率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 上半期까지 억제키로 했던 公共建物과 大型住宅 등의 新築許可措置를 明年初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완화조치로 고용증대의 효과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멘트·철근 등 資材業界의 不況이 해소될것이라고 말했다.

5年間 都市計劃變更 不許에 앞서

건설부는 全國 482개 都市計劃 年末까지 全面 補完

건설부는 전국 482개 都市計劃法 適用對象地域(市級 38, 邑級 112, 面級 332)의 미확정 계획과 不合理한 現存計劃을 年末까지 修正 또는 補完, 각 해당지역 별로 基本計劃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5年間 計劃을 변경하지 못하게 했다.

건설부는 당초 각 地方自治團體가 확정했던 現存 都市計劃을 그대로 인정,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都市別로 기존계획에 不合理한 점이 있고 아직 확정하지 못한 都市計劃이 있어, 그동안 內務部와 合同으로 관계 公務員의 再教育을 실시, 年末까지 都市計劃의 미비한 점을 시정토록 한 것이다.

아파트 建設実績 크게 不振

올들어 16,000 가구, 업체들 着工기피

8월7일 大韓建設協會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7월말 현재, 住宅建設業체들이 전국에 건설중인 아파트는 모두 16,446 가구로 금년 계획 96,000가구(이월사업 포함)에 비해 크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부진한것은 住宅景氣의 침체로 주택 소화의 전망이 크게 흐려, 대부분의 업체들이 착공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0万據点都市개발, 過密稅 등 규제 強化 등

首都圈計劃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外國專門家 8개국 60명 참가

首都圈計劃의 基本戰略과 政策에 관한 國際學術會議가 8月8~10日, 서울世宗文化會館에서 美·英·日·佛·加·和蘭·濠州 등 7개국과 우리나라의 關係專門家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國土開發研究院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首都圈의 균형있는 開發과 人口抑制策을 마련하기 위한것으로서, 開發戰略의 構想, 産業立地政策의 모색, 住宅 및 土地政策, 交通 및 都市서비스政策 등 4개 部門으로 나누어 主題發表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主題發表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首都圈開發戰略의 모색(黃明燦, 國土개발원 研究委員)

기존 首都圈地域을 5大開發圈域(制限·抑制·促進·保存·特殊地域)으로 구분, 開發戰略을 펴고 특히 過密地域은 事務室 등 3次産業施設에 대한 許可制와 産業施設을 통제해야 한다. 서울周邊的 그린벨트는 계속 固守, 都市의 平面擴散을 규제하고 首都圈 이외의 지역에 人口 40万~50万을 流入시킬 수 있는 據点都市開發이 필요하다.

□ 開發戰略의 構想(피터홀, 英리딩大教授)

서울의 人口, 産業分散은 地方에 衛星都市를 건설, 고용 기회를 늘리고 厚生·住宅·交通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이다. 輕工業을 衛星都市에 유치하고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政策의인 支援策이 따라야 한다.

□ 開發途上國의 大都市 集中과 戰略(해리 리처드슨, 英 맨체스터大學教授)

地域間 過密化 排除戰略은 자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地方雇傭增加를 위해 보조정책을 비롯 大都市投資에 대한 重課, 地方政府의 自治性 擴大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戰略은 浦項·光州·大田·全州 등 地方中心都市에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産業立地政策의 모색(일리엄, 英글래스고大教授)

産業分散은 據点都市 및 中小都市 開發과 農村 安住政策으로 구현해야 한다. 특히 農村開發은 衣類·纖維·食料品 등 輕工業施設의 유치로 추진하고, 서울에서는 過密稅를 신설, 신규 유입을 억제하고 全國의 産業 再配置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 産業分散政策(레오크라센, 和蘭 경제연구소장)

巨視的 分散策으로 據点都市와 같은 中規模都市를 개발하고, 大都市立地業체는 重課稅, 地方立地業체는 時限附로 財政支援하고, 行政機關의 신설은 據点地方都市에 배치해야 한다.

□ 住宅 및 土地政策(조셉얼쿠비, 佛환경문제 조정관)

大都市의 土地開發은 許可制로 규제하고 特別稅를 부과, 産業의 集中을 분산하는 한편 産業施設의 再配置를 위해서는 投資補助金 및 補償金 支給과 減稅措置가 바람직하다.

□ 首都圈 分散戰略과 住宅政策(朱鍾元, 서울工大教授)

住宅問題解決을 위해서는 首都圈의 土地利用計劃을 再調整하고, 現存聚落을 隣近住区單位로 擴張해야 한다.

□ 交通對策(멜빈웨버, 美 캘리포니아大 教授)

高價의 交通手段開發보다는 大衆輸送체제의 制度的 改善이 필요하다. 都心の 過密地域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通行料를 징수, 러시아워의 交通量을 줄여야 한다.

太陽熱住宅資金 融資 대폭 완화

關係企業들, 地方都市에 相談所 설치키로

8月10日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太陽熱住宅 取得者에 대한 住宅資金融資限度를 年당 400만원 이하로 책정했으나 이를 400만원 이상으로 上向調整하고 住宅資金 融資對象도 中層의 25평 이하에서 25평 이상까지도 확대할 것을 關係 당국 간에 협의중이다.

또 住宅賦金 払入과는 關係없이 住宅資金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年末까지 太陽熱住宅 普及促進을 위한 住宅資金을 20億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動資部는 太陽熱住宅相談을 위해 太陽熱 關係業者 및 団体들로 하여금 年末까지 전국에 40여개소의 相談室을 설치 운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太陽에너지연구소는 年末까지 大田에 3동, 釜山에 1동의 太陽熱住宅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상담에 응하기로 했다.

또 太陽에너지協會는 10月 이후, 地方支部에 상담소를 설치키로 하였다. 이밖에 韓國솔라에너지는 8月中旬, 光州와 大田에, 三星電子工業은 8月中旬 전국 道庁所在地등 31개 市에, 瑞興産業은 8月末에 釜山·大邱·光州 등에 각각 太陽熱住宅 相談所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行政首都建設 신중히, 過密·混雜稅 부과를,

公共土地所有制 점차導入 필요

首都圈計劃에 관한 國際會議서 건의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首都圈計劃의 基本戰略과 政策에 관한 國際學術會議는 5日間의 회의끝에 8月 10日 首都圈問題에 관한 綜合建議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學術會議의 總결산 형식으로된 이 建議는 ① 首都圈經濟와 관련이 있는 情報産業 또는 金融機關은 首都圈內에 事務所團地를 별도로 만들것, ② 首都圈 人口 및 産業分散을 위해 立地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業체에 過密稅·混雜稅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行政首都가 國家經濟와 首都圈經濟에 미칠 영향에 주의깊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首都圈 交通計劃을 전담할 수 있는 地域交通會社 設立, 土地에 관한 民間市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융통성 있는 公共土地所有制의 制度化, 에너지 危機에 따른 都市空間에 대한 영향, 都市体制에 있어서 據点都市에 대한 研究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新首都建設問題에 관해서는 政府民間業체의 緊密한 접촉이 韓國經濟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新首都建設과 같이 政府·民間業체의 상호 접촉 연결성을 훼손하는 政策을 수행하는데는 신중한 研究가 있어야 할것으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設計·監理業務의 분리에 반발

분리보다는 現實的 問題의 개선을

設計와 監理業務를 분리 二元化하기로한 建設部의 방침에 대해 建築士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8月 4日 建築士界에 따르면, 建設部가 아파트 등 각종 건축물의 不實工事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을 一部 改定, 設計 및 監理를 일괄하는 現行 建築士業務를 設計와 監理로 분리키로 한것은 現存 建築士業務領域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지적 이의 不當性을 關係당국에 建設키로 했다는 것이다.

建築士界는 建築施工에 따른 監理業務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原因은 監理費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建設部가 設計와 監理를 완전 분리시키게 되면, 建築士界의 零細性은 더욱 심화될것으로 우려했다. 建築士界는 設計 監理業務의 二元化보다는 現行 監理業務의 報酬料率을 높여 監理業務에 비중하도록 하는 한편, 建築士들로 하여금 구름을 편성, 운번제로 監理業務를 수행토록 하는 制度的 장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0개地方據点都市 集中開發

首都圈機能 地方확산, 人口20万 衛星都市도

国土綜合開發 基本計劃마련-건설부

건설부는 금년말까지 試案을 확정키로한 2단계 長期国土綜合開發計劃에 地方據点都市開發과 大都市 주변의 人口 20万 내외의 衛星都市 建設계획을 모두 삽입하고, 이를 위해 地方據点都市開發 대상인 大田·光州·全州·大邱·馬山·木浦·浦項·原州·淸州·順天 등 10개 都市에 대한 基本開發計劃을 세우기로 했다.

8月 13日 建設부에 의하면, 據点都市開發計劃은 全國土의 均衡개발과 首都圈 人口 및 産業을 地方으로 고르게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다루되 단순한 都市의 平面擴散이 아니고 中央政府 특히 首都圈이 담당하고있는 經濟·社會·教育·文化的 機

能의 地方拡散을 試圖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건설부는 서울을 비롯한 地方據点都市 주변에 신규개발도시로서의 衛星都市 建設計劃도 함께 추진, 各都市別로 都市型 輕工業을 비롯, 文化·教育·觀光 유치등 機能을 부여, 中軀都市로서의 집중을 주변 衛星都市에 확산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大都市圈을 형성한다는 政策方向을 제시키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2 단계 国土綜合開發計劃은 1982~2001년까지를 目標期間으로하고 그동안 서울—釜山을 연결하는 南北地域에 편중되어있는 国土機能을 嶺東과 西南海岸을 연결하는 새로운 南西開發軸의 형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長期計劃은 今年말까지 試案을 마련, 国土綜合開發審議委員會(委員長 國務總理)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仁川 化工藥品倉庫 폭발 연소

密閉倉庫內 온도 올라 自然發火 추정

8月13日 仁川稅関 特許의 大同倉庫(株) 안전창고에 보관중이던 化工藥品이 연쇄적으로 폭발해 인근주민등 95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重輕傷을 입었고, 반경 3km내에 있는 대형건물과 住宅 500여가구가 손해를 입었다.

불은 100여m의 불기둥이 솟으며 곧 이웃으로 번져, 5개동 15개의 창고에 쌓였던 「카본 블랙」, 「파라핀 왁스」 「아세톤」 등의 化工藥品드럼 3,007톤을 태우고 9시간 20분만에 꺼졌다. 피해액은 5~10억원으로 추정.

治安本部는 現場鑑識을 실시, 40℃이면 自然發火할 수 있는 化工藥品 「케톤」이 이번 사고의 發火地點에 대량 저장됐었음을 확인, 여기에서 發化한것이라 추정했다.

太陽熱住宅 최고 950만원까지 融資개시

住宅銀통해, 3年内 절거면 용자회수

8月14日 動資部에 의하면 住宅銀行이 취급하고있는 國民住宅資金은 25평 이내의 住宅建築時에만 최고 500만원까지 용자토록 되어있으나, 太陽熱住宅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 40평 이하에 950만원까지 용자 지원키로 했다.

太陽熱住宅을 건축할때 용자를 원하는 사람은 太陽에너지研究所나 太陽에너지協會의 추천을 받아 住宅銀行 本支店에 신청하면 된다.

國民住宅資金의 용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 年利率 16.5%(15평 미만은 14%)이다.

住宅規模別 용자액은 都市의 경우 15평 미만 900만원, 農村은 15평 이내 675만원, 18평 이내 720만원, 20평 이내 750만원, 40평이내 826만원이며, 용자받을 수 있는 太陽熱住宅은 集熱板 설치면적이 전체 난방면적의 1/3이상이어야 한다.

전국의 太陽熱住宅은 334동인데 현재 30동 정도가 建築中이고 약 40동이 건축을 추진중이다.

서울 普信閣 重建工事 준공

鐘樓2층, 144평으로 늘려

서울 普信閣 重建工事が 광복절인 8月15日 준공, 새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작년 6月 工事費 20億4000만원을 들여, 境域을 145평에서 851평으로 5배 이상 넓혀 公園을 만들었고, 건평 14평의 낡은 普信閣 鐘樓를 2층 144평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이날 준공식을 가졌으며, 正午에 光復節 記念打鐘을 33번 울렸다.